

5/2(월) 에스더 묵상 3

에스더 2:3-7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수에로 왕비였던 와스디가 폐위되고 왕의 측근 신하들에 의해 새 왕후를 맞아들이는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각 도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이 왕궁에 모여들게 됩니다. 거기에 유대인이자 모르드개의 양녀인 에스더가 후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새 왕후

아하수에로의 왕비 와스디를 대신할 여인을 선택하는 일이 전국 각 지방에 관리들을 통해 전해지게 됩니다. 이 일로 전국에 아리따운 처녀들이 다 도성 수산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들이 모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올 수 있었는지 아니면 지방 관리들의 추천과 허락을 통해 수산궁에 올 수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가 더 타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수산궁에 들어와서 왕궁의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개의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헤개는 왕비의 후보자가 되는 처녀들을 특별 관리를 하게 됩니다(3절,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개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이는 아마도 왕의 눈에 보기 좋은 아름다운 왕후를 선택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였습니다. 만약 신하들이 왕에게 새로운 왕후 자리를 추천하였는데 정작 왕의 마음에 드는 처녀가 없을 경우에 그들은 매우 난처한 입장에 빠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한껏 기대감에 부풀게 됩니다(4절,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 이 때 유대 사람인 에스더도 새 왕후의 후보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개와 에스더

본문은 에스더를 소개하기 이전에 모르드개를 먼저 소개합니다(5-6절,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개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개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모르드개는 베냐민 자손으로서 기스의 증손입니다. 본문 6절은 유다왕 여고냐 즉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왔을 때 함께 사로잡혔더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기스의 증손 모르드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명이인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기스의 증손 모르드개가 6절의 인물이라면 그는 이미 120살도 넘은 나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10:3, “**유대인 모르드개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 중에 크고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러므로 학자들은 6절의 모르드개는 기스를 의미하거나 기스의 또다른 이름을 뜻하는 것으로 봅니다. 한편 에스더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에서 사로 잡혀온 가족들에 의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에스더의 부모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녀는 부친은 모르드개의 삼촌입니다. 에스더는 부모를 여의고 고아로 자라게 됩니다. 부모가 없는 불쌍한 에스더를 모르드개는 양녀로 삼아서 기르게 됩니다(7절,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개가 자기 딸 같이 양육하더라.**”). 본문은 모르드개가 에스더를 양녀로 삼아 자기 딸 같이 지극 정성과 사랑으로

양육했음을 언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르드개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모르드개는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동시에 불의에 대해 비굴하게 구걸하지 않는 용기와 기백을 가진 인물입니다(에 3:2,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오늘 말씀을 묵상한 대로 모르드개는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영혼에 대한 사랑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용기와 정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 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고전 13:4-7,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단순히 착하고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악한 것과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 하면서 눈 감아주고 심지어 그런 것들을 지지한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참된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러시아의 공격이 멈추고 푸틴의 무모하고 잔인한 공격이 멈추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땅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의 교회와 선교지들을 주의 사랑과 긍휼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영상미디어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말레이시아 홍리브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